

동일화 문장에서 연결어 это

이 기 응*

- 개요 -

이 논문의 목적은 러시아어에서 $[A - \text{это} B]$ 구조의 문장, 즉 동일화 문장에서 보조사 это 의 구조적인 그리고 기능적인 성격을 규정하는 데 있다. 논문의 첫 부분은 러시아어에서 등식적인(equative) 문장 유형에 대한 일반적인 고찰로부터 출발해서, 표현면의 측면에서 계사나 연결사의 유무에 따른 무표적 구조와 유표적 구조의 구분을 제시하고 있다. 두 번째 부분은 대표적인 이러한 유표적 구조들 중의 하나인 $[A - \text{это} B]$ 에서 это 가 보여주는 언어적 양상들을 고찰하면서 그것의 본질적인 기능을 테마와 레마 사이를 연결해주는 아나포라적 서술 보조사로 규정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부분에서는 동일화 문장 내에서 가능한 아나포라적 요소들로서 이러한 это 와 3인칭 대명사 사이의 본질적인 차이를 고찰하고 있다. 동일화 문장에서, 3인칭 대명사가 테마의 강조 및 이중화와 관련된 것이라면, 서술 보조사 это 는 선행사의 강조 및 테마와 레마 사이의 동일성의 서술을 본질적 기능으로 하는 요소인 것이다.

주 제 어: 등식 문장, 동일화, 계사, 서술 보조사, 아나포라, 테마, 레마

* 경북대학교 노어노문학과 교수.

Elle est retrouvée!
 Quoi? - L'Éternité.
 C'est la mer allée
 Avec le soleil.
 - Rimbaud -

1.

의미적으로 논항 혹은 참여자가 둘인 최소 구조의 문장에서 둘 사이의 관계를 맺어 주는 술어의 유형은 언어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6가지로 분류될 수 있다. 즉, 1) 등식적(equative), 2) 속성 전환, 3) 비유적인 경우들까지 포함하는 넓은 의미에서 공간적 또는 시간적 위상설정(location), 4) 소유 관계, 5) 정태적 과정이나 행위, 그리고 6) 능동적 행위.¹⁾ 이런 분류에 따르자면, 러시아어에서 두 개의 논항이 주격인 문장 구조의 경우, 즉 양(兩)주격 문장(биноминативное предложение)의 경우, 술어는 1)의 유형에 속한다.

1) Валентина Терешкова – первая женщина-космонавт.
 발렌티나 테레슈코바는 최초의 여성 우주비행사이다.

2) Свобода – имманентное свойство человека.
 자유는 인간의 내재적 속성이다.

2') Имманентное свойство человека – свобода.
 자유가 인간의 내재적 속성이다.

3) Собака животное.
 개는 동물이다.

위의 예문 1) ~ 3)은 모두 두 개의 주격 논항 A, B에 대해서 개념적으로 'A = B'나 'A ⊂ B'를 표현하는 등식적인 과정의 술어인 계사(copula)가

1) 이 분류는 하나의 참여자와 술어로 구성된 최소 발화 모형에 대한 아제주의 분류를 참조, 변형한 것이다. C. Hagège(1982) *La Structure des langues*, Paris: PUF, p. 46.

быть-∅로, 즉 ‘~이다’는 의미의 동사 어휘소 быть가 제로(zero) 형태로 실현된 경우들이다. 러시아어에서 계사 быть의 경우 현재 시제에서는 이 처럼 ∅, 즉 제로 형태가 무표적이다.²⁾ 때문에 위의 1) ~ 3)과 같은 양주격 문장의 경우, 현재 시제에서는 A와 B 중에서 어떤 것이 주어인지를 명확히 표시해주는 일반적인 문법적 틀이 없다. 단지 문법적 지침으로서, 예문 3)처럼 외연이 더 작은 것이 또는 예문 2)처럼 논리상 개념적으로 함의되는 것이 그리고 예문 1)처럼 대상의 속성이 아니라 대상 자체를 지시하는 것이 주어가 돼야 한다는 규정 정도가 있다.³⁾ 그렇지만 당연히 이 같은 규정만으로는 충분치 않은 무수히 많은 경우들이 있음을 쉽사리 짐작할 수 있다.

- 4) Кто↘ Иван?
누가 이반이냐?
- 5) Кто Иван↗ ?
이반이 누구냐?
- 6) Моя сестра – заведующая.
내 누이는 학과장이다.
- 7) Заведующая – моя сестра.
학과장은 내 누이다.
- 8) Время ночь.⁴⁾
시간은 밤.

2) 레르미트는 이러한 계사 быть-∅ 형태의 문장을 “명사문(phrase nominale)”으로 규정하지만, 시제와 관련해서 이 제로 술어도 문법적 패러다임을 형성하는 한, 즉 과거 시제와 미래 시제에서는 동사 형태로 표현되는 이상, 단순히 명사문으로 볼 수만은 없다. 이보다 그의 작업의 미덕은 이러한 быть-∅가 고대 러시아어에서 12세기부터 시작돼서 16세기 이전에 정착한 현상이라는 점을 실증적인 연구를 통해서 밝혀낸 데 있으며, 또한 이 같은 과정이 핀-우그르어 기층(substratum)의 영향일 것이라는 가설을 좀 더 근거 있게 내세우는 데 있다. R. L’Hermitte(1978) *La Phrase nominale en russe*, Paris: Institut d’études slaves.

3) Н. Ю. Шведова и др.(ред.)(1980) *Русская грамматика*, Т. II, М.: Наука, С. 288.

위와 같은 간단한 예들을 보더라도, 계사 *быть-∅*가 있는 등식적 문장에서 주어 명사가 술어부의 명사에 비해서 갖는 보다 높은 지시성 혹은 지시적 위상은 억양, 어순, 그리고 발화 문맥 등에 의해서 결정될 수도 있음을 알 수 있다.⁵⁾ 사정이 이러한 것은 물론 계로 계사가 있는 무표적인 양주격 문장에서는 주어-술어라는 문법적 분절의 형식정보보다는 테마-레마라는 소통적 차원의 분절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계사 *быть-∅*가 있는 양주격 문장을 무표 구조로 본다면, 이것과 대비되는 유표 구조는 이 *быть-∅*를 대신하는 계사 *есть/суть*(비교적 드물게 쓰이는 복수 형태)가 있거나 또는 이것과 결합된 표현들 및 유사한 기능을 갖는 다음과 같은 언어 요소들이 명시적으로 나타나는 경우들이라고 할 수 있다. 즉, *и есть*,⁶⁾ *это, вот, значит, это есть, это и есть, то же самое что, это то же самое что, не что иное как/не кто иной как...* 등등. 이러한 유표적인 요소들 중에서 이 논문에서는 연결어 *это*의 규명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이유는 ‘A는 B이다’라는 등식 구조의 문장에서 가장 널리 쓰이는 유표적 연결어가 바로 이 *это*이기 때문이다.⁷⁾ 또한 두 개의 논항 간의 동일화를 가장 자연스럽게 표현해주는 연결어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물론 이 연결어 *это*가 기능적으로 가령 *это жизнь!* ‘인생이란 이런/저런/그런 거다!(cf. *c'est la vie!*)’와 같은 예에서 활용되는 직시 대명사 *это*로부터 유래했다는 것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그렇지만 활용 문맥이 다른 이상, ‘구

4) 이 예문은 류드밀라 페트루셴스카야의 소설 제목으로서 명사문의 전형적인 경우이다. 이 소설은 독일어로 먼저 발표됐는데, 독일어 제목은 “*Meine Zeit ist die Nacht*”이다. 류드밀라 페트루셴스카야(2020) 『시간은 밤』, 김혜란 옮김, 문학동네.

5) 보다 상세한 고찰은 다음 논문을 참조할 것. E. V. Падучева и В. А. Успенский (1979), “Подлежащее или сказуемое?”, *Изв. АН СССР, Сер. лит. и яз.*, № 4, С. 349-360.

6) 계사 *есть*에 소사 *и*가 결합함으로써 보다 강화된 표현이 되는 이유는 다음을 참조할 것. 이기웅(2011) 「러시아어 소사 ‘И’에 대해서」, 『러시아연구』, 제21권 제1호, 서울대학교 러시아연구소, 157-178.

7) Шведова и др.(ред.)(1980) *Русская грамматика*, Т. II, С. 284-286 참조. 그렇지만 “규범어(литературный язык)” 내에서의 빈도수를 보면, 양주격 구문의 경우 연결사 *есть*가 *это*보다 훨씬 더 자주 사용된다. E. Л. Вилинбахова и М. В. Копотев (2017) “«X есть X» значит «X это X»? Ищем ответ в синхронии и диахронии”, *Вопросы языкознания*, № 3, С. 115.

체적인 것이든 막연한 것이든 간에 어떤 것을 그것에 대한 별다른 개념적 고려 없이 가리키는' 이 대명사 это의 기능이⁸⁾ 연결어 это에서도 그대로 유지된다고 보기는 힘들다.

2.

우선, 양주격 문장 [A - это B] 'A란 곧 B이다'에서 연결어 это의 기능에 대해서 살펴보자. 최근에 이 это를 문법적 주어로 보려는 입장이 있는데, 그것은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이다.

9) Хороший урожай - это удобрения.
 좋은 수확이란 바로 비료이다.
 {의미 구조: '좋은 수확에는 비료가 필수적이다.'}

10) Удобрения - это хороший урожай.
 비료란 곧 좋은 수확이다.
 {의미 구조: '좋은 수확을 위해서 비료로 충분하다.'}

예문 9)-10)과 같은 경우들에서는 문법적으로 두 개의 주격 명사 중에서 어떤 것이 주어인지를 결정하는 것이 불가능해 보인다. 그렇지만 멜츠크(И. А. Мельчук), 졸코프스키(А. К. Жолковский) 등이 구상한 «의미 ⇔ 텍스트 (Смысл ⇔ Текст)» 이론과 모형에 따르면,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다.⁹⁾ 요컨대, это 앞의 주격 명사구를 미리 앞에 던져 놓은 성분으로, 즉 일종의 통사적 전사(前射, prolepsis) 현상으로 보고, 그것을 это가 받는다고 생각하면, 바로 это가 심층 통사 구조에서는 제1논항이 그리고 표층 통사 구조에서는 주어가 되며, 그것 뒤에 위치하는 주격 명사구는 술어인 계사 быть(심층 구조의 이어휘소는 표층 구조에서는 ∅가 된다)의 제2논항이자 “주어 결속(субъектно-

8) 직시와 아나포라(anaphora)에서 대명사 это가 갖는 특성에 관해서는 다음을 참조할 것. Е. В. Падучева(1985) *Высказывание и его соотносительность с действительностью*, М.: Наука, С. 164-180.

9) 이 이론의 전체적인 모습은 다음을 참고할 것. И. А. Мельчук(1999 [1974]) *Опыт теории «Смысл ⇔ Текст»*, М.: Языки русской культуры.

присвязочное)” 보어가 된다. 그리고 미리 앞에 던져 놓은 명사구는 술어에 대해서 논항이 아니라 부가적(appendant) 관계를 맺는다.¹⁰⁾ 그러나 이러한 방식의 설명은 그 정교함에도 불구하고 몇몇 문제점이 있다.

첫째, 제시된 예문 9)와 10)의 {의미 구조}를 보면, 각각 상이한 술어 의미소가, 즉 9)는 ‘необходимый’가 그리고 10)은 ‘досточный’가 설정되고 있는데, 이러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심층 통사 구조에서 это와 그리고 그것을 제1논항으로 지배하는 계사 быть로 이뤄진 단일한 구조가 의미 구조의 층위에서 개별 문장에 따라서 상이한 술어 어휘소로 대응된다는 것은 일반성과 일관성이 결여된 설명 방식이다. 오히려 9)-10)과 같은 문장에서 это는 계사 술어 быть-∅로 표현되는 등식적 과정을 동일화의 과정으로 강화시키는 의미적 기능을 갖는다고 보는 것이 더 일반적인 설명적 타당성의 확보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멜츠크의 구상처럼, 문장의 의미 표시, 즉 의미적 표상은 의미 구조를 중심으로 소통 구조, 수사 구조, 지시 구조 등이 결합한 것이라면,¹¹⁾ 사실 그가 제시하는 예문 9)와 10)의 의미 구조는 의미 구조라기보다는 오히려 그 같은 의미 표시가 특정한 문맥과 연관된 추정(inference)과 결합해서 도출되는 발화의 실제적 의미에 가깝다.¹²⁾

둘째, [A – это B]의 문장에서 보통 это는 앞에 있는 테마 A를 받아서 그것이 뒤에 위치하는 레마 B와 ‘동일하다’는 것을 나타내지만, 아래와 같이 이러한 틀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들도 있다.

11) Это несказанное чудо – лемешевский голос. (А. Е. Рекемчук)¹³⁾
바로 형언할 수 없는 기적이다, 레메셰프의 목소리란.

10) 예문 9) 이하 여기까지의 내용은 다음의 것을 요약한 것이다. И. А. Мельчук (2012) *Язык: от смысла к тексту*, М.: Языки славянской культуры, С. 86-87. 그리고 멜츠크 자신도 밝히고 있듯이 이러한 착상은 다음의 것에 의거하고 있다. Л. Л. Иомдин(2010) “2.2. Пролептические и близкие к ним конструкции”, в кн. Ю. Д. Апресян и др., *Теоретические проблемы русского синтаксиса*, М.: Языки славянской культуры, С. 125-126.

11) Мельчук(1999) “Предисловие”, С. v-vi.

12) 발화의 실제적 의미에 관해서는 다음을 참조할 것. 이기웅(2001) 「자연 언어 의미 기술의 문제점과 전망」, 『언어학』, 제30호, 한국언어학회, 177-178쪽.

13) Шведова и др.(ред.)(1980) *Русская грамматика*, С. 287에서 재인용.

12) Институт¹⁴ – это наш дом.

‘Дом, по сути дела, является для нас Институтом.’¹⁴⁾

바로 연구소가 우리들의 집인 것이다.

예문 11)은 тема A가 뒤에 후치된 경우인데, 이럴 경우 원래 это가 함축하고 있는 아나포라 현상이 더 확연히 나타난다(축어적으로는 아나포라(anaphora)와 카타포라(cataphora)를 구분해야 하지만, 여기서는 둘 다 아나포라로 칭하겠다). 이오딘(Л. Л. Иомдин)이 제시한 러시아어 의미 해석에서 보듯, 예문 12)는 강조된 레마가 это 앞으로 나온 경우인데, 물론 이 경우에도 тема와 레마는 둘 사이의 동일성을 명시적으로 표현해주는 это에 의해 연결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이 같은 경우들에서 это를 과연 문법적 주어로 볼 수 있는 것일까? 사실, 여러 저자들은 이러한 это에 대해서 지시 대명사적 속성은 인정하지만 주어나 계사로서의 지위는 인정하지 않는다. 가령, 이인영은 이 это를 술어 명사에 부가된 화제로 보며,¹⁵⁾ 권경준은 소절(small clause) 내에서 발생하는 대명사 “중출(doubling)” 현상의 일종으로 본다.¹⁶⁾ 그리고 빌린바호바(Е. Л. Вилинбахова)와 코포테프(М. В. Копотев)는 권경준의 견해를 참조하면서 동사 계사 есть와 차별화되는 일종의 비동사적인 반(半)계사(полусвязка)로 간주하고 있다.¹⁷⁾

셋째, 이러한 это의 기능과 관련해서 관찰의 폭을 보다 넓혀 보면, 아래와 같은 흥미로운 예들도 발견된다.

13) Петя, это который? — Это тот, что с бородой и в красном галстуке.¹⁸⁾

14) Иомдин(2010), 125.

15) 이인영(2006) 「러시아어 ‘NP1—(BE)—NP2’ 구문 다시 보기」, 『러시아연구』, 제16권 제1호, 서울대학교 러시아연구소, 193-196쪽 참조.

16) 권경준(2018) 「러시아어 대명사 중출구문의 통사적 파생」, 『러시아어문학연구논집』, 제61집, 한국러시아학회, 89-112쪽.

17) Вилинбахова и Копотев(2017), 114, 121. 이들이 참조한 권경준의 연구는 다음의 것이다. K. Kwon(2010) “The Small Clause in Russian: Structure and History,” Harvard University, Ph.D. thesis.

18) Н. Д. Арутюнова(1998) *Язык и мир человека*, М.: Языки русской культуры,

페타는 (이 중에서) 누구냐? - 턱수염이 있고 빨간 넥타이를 한 남자다.

14) А я, коли видели: висит человек снаржи дома в ящике на веревке и стену краской мажет, или по крыше, словно муха, ходит - это он самый я и есть. (Салтыков-Щедрин)¹⁹⁾

나로 말하자면, 행여 여러분은 봤을 것이다. 사람이 집 밖에서 가느다란 밧줄에 매달린 상자 속에 서서 벽을 칠하거나, 또는 지붕 위를 마치 파리처럼 돌아다니는 것을. 바로 그런 사람 그 자체인 것이다, 나아말로.

예문 13)은 동일성을 서술해주는 это를 활용해서, ‘어떤 사람의 용모란 바로 그 사람’이라는 우리의 일상적 개념화를 잘 보여주고 있다. 예문 14)의 경우에는 это он самый я и есть라는 표현이 흥미롭다. 여기서는 예 11)처럼 это와 연결되는 테마가 후치되었을 뿐만 아니라, 또한 통상 это и есть로 굳어져서 동일성을 강하게 서술해주는 표현이 это와 и есть로 분리돼서 활용되고 있다. 이것은 아마도 19세기 후반 살트이코프- Ще드린의 언어 감각은 это를 여전히 지시적인 기능이 강한 연결사로 그리고 и есть는 강화된 계사로 분리해서 감지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는지도 모르겠다.²⁰⁾

그렇다면, 이상과 같은 관찰들과 여러 입장들의 고려를 바탕으로, [A - это B]의 문장 유형에서 (이제 A와 B는 반드시 명사가 아니어도 되며, 또한 일정한 어순적 변형도 가능하다) 이 это를 어떻게 봐야 할까? 계사도 문법적 주어도 아니라면, 과연 무엇일까? 지금까지 살펴본 바에 따르면, 그것은 테마와 레마 중에서 어느 하나를 - 주로 테마를 - 받는 아나포라적인 요소이면서 그와 동시에 그것을 다른 하나와 동일한 것으로 서술해주는 기능을 갖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это를 테마와 레마 사이의 동일성을 나타내주는 아나포라적 서술 보조사라고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와 대응되는 직시적 서술 보조사로서 это도 있다.

C. 37.

19) Арутюнова(1998), 290에서 재인용.

20) 19세기 후반부터 연결사 это가 활발히 활용되는 데는 살트이코프- Ще드린의 문체적 혁신도 기여한 바가 있는 것 같아 보인다. Вилинбахова и Копотев(2017), 113 참조.

15) Для нас Пушкин – это не только его (*свои) стихи.²¹⁾
우리에게 푸슈킨이란 단지 그의 시만이 아니다.

16) Наконец показывается первая лодка. – Это Юра.²²⁾
마침내 첫 번째 보트가 보인다. “유라다.”

17) Это стакан упал.
떨어진 것은 컵이다.

18) Петя, это ты меня оттолкнул.
페타, 나를 밀쳐낸 것은 너다.

당연히 예문 15)에서 это는 동일성을 표현하는 아나포라적 서술 보조사이다. 예문 16)의 경우는 이중적이다. 텍스트 자체로만 보면, это는 선행사가 함축된 아나포라적 서술 보조사이다. 그렇지만 텍스트가 서술하는 세계의 관점에서 보면, 그것은 직시적 서술 보조사이다. 예문 17)은 어떤 것이 떨어진 것을 감지한 상대방에게 화자가 그것이 컵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즉 레마를 명시해주는 직시적 서술 보조사이다. 예문 18)의 это 역시도 마찬가지로 지이다.

참고로, 이상과 같은 특징을 보이는 러시아어의 это는 프랑스어에서 서술 보조의 기능을 갖는 c'est와 비교될 수도 있다. 원래 ‘이것/저것/그것, ~한 것’ 등을 나타내는 지시 대명사 ce와 계사로도 쓰이는 동사 être의 단수 3인칭 활용형이 결합해서 굳어진 이 표현도 아래의 예들에서 보듯 러시아어의 это처럼 직시적 서술 보조의 기능도 하고 아나포라적 서술 보조의 기능도 한다.

19) L'État, c'est moi. (Louis XIV)
국가란 바로 나다.

20) Une chaleur de vie, une image de mort, c'était cela la connaissance.
(Camus)
삶의 어떤 온기, 죽음의 어떤 이미지, 바로 그것이였다 삶이란.

21) Падучева(1985), 188. 이러한 동일화 문장에서는 재귀화에 제약이 있다.

22) Падучева(1985), 165.

- 21) Marie, c'est Jean qui vous aime.
마리, 당신을 사랑하는 것은 장이다.
- 22) C'est oui ou c'est non?
찬성이나 반대냐?

예문 19)와 20)은 동일화를 나타내는 서술 보조적 기능의 표현 c'est의 아나포라적 용법의 경우들이다. 예문 21)에서 c'est는 레마를 강조하는 직시적 용법이다. 그리고 예문 22)의 경우에 직시 대상은 어떤 사안에 대한 - 이 물음 전이나 뒤에 나오는 - 상대방의 태도나 말이 될 것이다.

3.

지금까지의 논의를 바탕으로, [A - это B] 문장과 [A, он(/она/оно/они) B] 문장에서 아나포라적 서술 보조사 это와 3인칭 대명사 간의 차이를 고찰해보자. 지시 대명사 это의 경우는 그것과 3인칭 대명사 간의 차이를 파두체바 및 셸리베르스토바(O. Н. Селиверстова)가 비교적 상세하게 고찰한 바 있다.²³⁾ 문제는 이들의 고찰이 등식적인 문장 구조에서 서술 보조사 это와 3인칭 대명사 사이에서도 유효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등식적인 문장의 경우 단순히 문법적인 통사 구조의 성립이라는 측면에서만 보면, 명사 성분의 선행사에 대해서 그것을 это로 받든지 3인칭 대명사로 받든지 별 차이가 없어 보인다.

- 23) Институт - это наш дом.
연구소는 바로 (바로 연구소가) 우리들의 집이다.
- 24) Институт, он наш дом.
연구소, 그것은 우리들의 집이다.
- 25) Корейцы - это слишком прилежный народ.
한국인들은 너무 부지런한 민족이다.

23) Падучева(1985), 142-180.

- 26) Корейцы, они слишком прилежный народ.
한국인들, 그들은 너무 부지런한 민족(/사람들)이다.

예문 23)과 24)에 대해서, 이음딘은 그 차이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23)의 경우 억양에 따라서 это의 선행사는 강조된 테마가 될 수도 있고 또 강조된 레마일 수도 있다(앞의 예문 12)를 볼 것). 반면, 24)에서는 강조된 그리고 이중화된 테마의 경우만 가능하다.²⁴⁾ 예문 25)에서 это의 선행사는 총칭적 부류를 지칭한다면, 예문 26)에서 они의 선행사는 발화 문맥에 따라서 총칭적 부류를 나타내거나 아니면 거론되는 특정한 부류를 가리킬 수도 있다. 결국 이 같은 양태의 의미적 차이와 유사성들이란 다음과 같은 기능적 차이로부터 기인하는 것일 것이다. 즉, 등식적인 문장에서 서술 보조사 это는 선행사를 또는 드물게 후행사를 강조함과 동시에 테마와 레마 사이의 동일화를 표현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수단이라면, 3인칭 대명사의 경우는 주로 선행사로 또는 드물게 후행사로 던져지는 테마의 강조 및 이중화와 관련된 수단인 것이다. 따라서 동일화 문장의 경우 3인칭 대명사보다는 서술 보조사 это를 쓰는 것이 문체적으로 자연스럽게 또 일반적이다.

- 27) Пушкин – это солнце, а солнце над Россией должно стоять каждый день, просветляя каждого из нас и разгоняя тьму.

(И. Золотусский)

푸슈킨이란 바로 태양이며, 그 태양은 매일같이 러시아 위에서 우리들 각자의 내면을 비추면서 어둠을 몰아내고 있음이 틀림없다.

- 28) Окончание школы – это немаловажное событие в жизни молодого человека, а окончание школы в дни войны – это событие совсем особенное. (А. Фадеев)

졸업이란 곧 젊은이의 인생에서 제법 중요한 사건인데, 전시에 졸업이란 실로 특별한 사건이다.

위의 예들에서 아나포라적 서술 보조사 это를 3인칭 대명사로 교체하는 것은 문법적으로 가능하지만, 굳이 중복화를 통해서 테마를 문체적으로 더 무겁게 만들 이유는 없어 보인다.

24) Иомдин(2010), 127.

끝으로, 동일화 문장에서 이 둘 사이의 구조적인 기능적 차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동어반복의 가능성 여부이다. 선행사를 3인칭 대명사로 받는 동어반복은 당연히 불가능한 반면, 아나포라적 서술 보조사 *это*를 활용하는 동어반복은 가령 *Я - это я* ‘나는 나다’, *Маша - это Маша, а Миша - это Миша* ‘마샤는 마샤고, 미샤는 미샤다’, *Вопрос - это вопрос* ‘질문은 질문이다’...처럼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물론 이러한 동어반복의 실제적 의미는 그것의 논리적인 의미 구조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의 발화를 통해서 화자가 상대방에게서 얻어내고자 하는 추정 효과에 있다.

참고문헌

- 권경준(2018) 「러시아어 대명사 중출구문의 통사적 파생」, 『러시아어문학연구논집』, 제61집, 한국러시아문학회, 89-112쪽.
- 이기웅(2001) 「자연 언어 의미 기술의 문제점과 전망」, 『언어학』, 제30호, 한국언어학회, 167-184쪽.
- _____ (2011) 「러시아어 조사 “И”에 대해서」, 『러시아연구』, 제21권 제1호, 서울대학교 러시아연구소, 157-178쪽.
- 이인영(2006) 「러시아어 ‘NP1—(BE)—NP2’ 구문 다시 보기」, 『러시아연구』, 제16권 제1호, 서울대학교 러시아연구소, 179-212쪽.
- Арутюнова, Н. Д.(1998) *Язык и мир человека*, М.: Языки русской культуры.
- Вилинбахова, Е. Л. и М. В. Копотев(2017) “«X есть X» значит «X это X»? Ищем ответ в синхронии и диахронии”, *Вопросы языкознания*, № 3, С. 110-124.
- Иомдин, Л. Л.(2010) “2.2. Пролептические и близкие к ним конструкции”, в кн. Ю. Д. Апресян и др., *Теоретические проблемы русского синтаксиса*, М.: Языки славянской культуры, С. 113-129.
- Мельчук, И. А.(1999 [1974]) *Опыт теории «Смысл ⇔ Текст»*, М.: Язык и русской культуры.
- _____ (2012) *Язык: от смысла к тексту*, М.: Языки славянской культуры.
- Падучева, Е. В.(1985) *Высказывание и его соотносительность с действительностью*, М.: Наука.
- Падучева, Е. В. и В. А. Успенский(1979) “Подлежащее или сказуемое?”, *Изв. АН СССР, Сер. лит. и яз.*, № 4, С. 349-360.
- Селиверстова, О. Н.(2004) *Труды по семантике*, М.: Языки славянской культуры.
- Шведова, Н. Ю. и др.(ред.)(1980) *Русская грамматика*, Т. II, М.: Наука.
- Hagège, C.(1982) *La Structure des langues*, Paris: PUF.
- Kwon, K.(2010) “The Small Clause in Russian: Structure and History,” Harvard University, Ph.D. thesis.
- L’Hermitte, R.(1978) *La Phrase nominale en russe*, Paris: Institut d’études slaves.

Abstract**The Linking Word “это” in the Sentence of Identification****Lee, Kee Woong***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define the structural and functional characteristics of the auxiliary word “это” in the sentence type of [A – это B] structure, that is, one of the representative types of identification sentence in Russian. The first part of the thesis presents a general consideration on equative sentence in Russian, and the division of non-marked and marked structures according to the presence or absence of copula “быть” or other linking word on the plane of expression. The second part reexamines various linguistic aspects of “это” in the sentence type [A – это B], one of these representative marked structures, and defines its essential function as an anaphoric auxiliary of predication that connects theme and rheme by referring one of these two constituents to its antecedent. Finally, in the third part, the essential difference between “это” and third person pronouns as possible anaphoric items in the identification sentence is examined. In the identification sentence, if the third person pronoun is related to the emphasis and duplication of the theme, the predicate auxiliary “это” is an element whose essential function consists in emphasizing its antecedent and predicating the identity between theme and rheme.

Key words: Equative Sentence, Identification, Copula, Auxiliary of Predication, Anaphora, Theme, Rheme

* Professor in the Department of Russian Language and Literature at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이 기 응

경북대학교 노어노문학과 교수. 파리5대학교 언어학과에서 러시아어 동사의 문법 범주로서 태에 관한 논문으로 박사 학위를 받았다. 통사론, 의미론, 화용론 분야에서 일반 언어학과 러시아어학에 관한 논문들을 발표해 왔으며, 최근에는 러시아 문화의 분야로 관심의 영역을 넓히고 있다. 최근의 논문으로는 「소설 서술의 한 형식: 『악령』의 내러티브 구성」이 있다.

Lee, Kee Woong

Professor in the Department of Russian Language and Literature at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He received Ph.D. in linguistics at University Paris V. He has been publishing articles on syntax, semantics, and pragmatics in general linguistics and Russian linguistics. His recent research interests include Russian cultural studies also. His recent publication is “A Form of Novel Narration: *The Possessed*'s Narrative Construction.”

 논문심사일정

논문투고일:	2021. 9. 29
논문심사일:	2021. 10. 19 ~ 2021. 11. 8
심사완료일:	2021. 11. 8